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하나음악정보센터와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하나음악정보센터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음악전자도서관, 다통로감상실을 비롯한 센터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관리운영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건설공법에 의한 돌장식으로 외부를 무게있게 처리하였을뿐 아니라 다기능으로 내부시공을 잘하여 센터를 현대미가 나게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현대적인 립체음향설비를 갖춘 다통로감상실에 들리시여 몸소 음악을 감상해보시면서 극장에 앉아 음악을 직접 듣는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수 있게 잘 꾸렸다고 말씀하시였다.

센터에서는 새 노래 녹음과 악보, 국가적으로 출판하는 음악무용도서 등 예술자료들을 다 가지고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지난 수십년동안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과정에 체계적으로 수집한 음악작품들을 모두 보내주겠으니 그것을 입력시켜 우리 인민들이 널리 감상하고 리용할수 있게 하라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음악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존재로 키우기 위한 사상정서적교양에 적극 이바지하고 인민대중의 창조적인 생활과 투쟁에 복무하는 힘있는 무기라고 하시면서 음악정보센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음악정보센터 2층에 꾸러진 하나전자합영회사의 생산현장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생산현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능력과 제품의 가치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하나전자합영회사에서 년산 수십만대의 생산능력을 가진 전자제품생산공정을 꾸려놓고 여러가지 문화용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

였다.

새 전자제품연구개발정형도 료해하시고 최첨단돌과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하나전자합영회사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비상한 창조정신을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개점을 앞둔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지

도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1, 2, 3층으로 이루어진 매장들을 돌아보시면서 상품의 가치수와 진렬상태, 판매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진렬장과 진렬대, 진렬도구를 비롯한 설비와 비품들이 상품보관과 판매, 구매자들의 요구에 맞게 그쁘히 갖추어졌다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게 될 상업봉사기지를 훌륭히 꾸린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매장에 가득히 진렬해놓은 여러가지 기쁨들의 가치수를 료해하시고 지금보다 지표를 더욱 높이고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떨구지 말고 판매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가득히 쌓여있는 사탕, 과자를 비롯한 식료품들이 선홍식료공장에서 생산한것인데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이 공장 제품이라면 누구나 좋아한다는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주시였다.

뜨개모자들을 씌워보시고 일군들에게 보기에 어떤가, 마음에 드는지도 물어주시며 처녀들과 녀성들이 좋아할것이라고 하시였다.

광복지구상업중심이 새로 꾸러지게 됨으로써 인민들의 늘어나는 상품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상품들을 가득히 채워놓은것을 보니 추운 날인데도 마음이 후더워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요구하는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어떤 일이 있어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꾸러진 광복지구상업중심의 봉사활동에서 나오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광복지구상업중심의 전체 봉사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상업봉사활동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 함남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함남의 불길높이 대교조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함흥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 금수침전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10만여㎡의 맑은 물이 첩첩 흘러넘치고 주위웅벽과 도류벽, 양수장, 수문설비, 란간을 비롯한 새롭게 변모된 침전지의 풍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21세기 선군문화, 천년책임, 만년보종의 진짜 참모습을 비껴안은 침전지에서 살아숨쉬는 생명체에 약동하는 활력을 부여주듯 샘물처럼 깨끗이 정화된 맑은 물이 대화합공업기지의 우렁찬 동음에 화답하며 흘러드는것을 기쁨속에 바라보시였다.

침전지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시고 일떠세워 주신 자립적인중경제의 우월성과 위력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철저히, 가장 빛나게 관철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거듭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가공직장, 열처리 작업반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진정형과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가공직장에서 새로 장비한 CNC공작기계를 보시고 우리 당이 품들어 마련해놓은 강력한 련하기계가 있으니 이제는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마음먹은대로 할수 있게 되었다고 궁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지난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는 비결은 우리 당의 최첨단돌과사상을 높이 받들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운데 있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분투하고있는 그들의 투쟁기풍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분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공장의 로동계급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혁명적대교조의 앞장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을 창조화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로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신홍산화학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종합조성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기술개진정형과 생산실태를 료해하시였다. 현대적으로 기술개진된 생산공정들을 보시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방대한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공장에서 생산건물의 외벽치리를 잘해 놓았을뿐아니라 주변정리도 깨끗하게 하

였다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의 불타는 공장을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화학공업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신홍산화학공장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함흥편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연혁소개실에 들리시여 1957년 5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뜻깊은 사진과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장이 걸어난 자랑찬 행로와 관련한 자료들을 보시였다.

이어 제작직장을 비롯한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편직물생산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올해 많은 편직물들을 상업망들에 내보냈으며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다는것을 료해하시고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함흥편직공장은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흥남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견본실, 준비직장, 제작직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중산의 동음을 울리며 질 좋은 갖가지 구

두들을 생산하고있는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안고 이악하게 노력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수여받은 어버이수령님의 표창장, 감사문들을 일일이 보시고 이것만 보아도 공장이 일을 잘하고있음을 알수 있다고 기뻐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도와 동해지구 인민들의 신발문제해결에서 흥남구두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흥남구두공장의 로동계급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신발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성전강수출품출하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산물가공공장, 실내축양장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사업소의 생산도태와 수산물보관 및 가공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사업소에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키토산을 가지고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나노제품을 만들고있는 정형을 료해하시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축복해주시였다.

사업소에서 자체의 힘으로 진로소, 은덕원 등 문화후생시설들과 교양마당을 번듯하게 꾸려놓았을뿐아니라 구내에 많은 나무들과 사철푸른 잔디를 심어놓음으로써

풍치를 돌군데 대해서도 만족해하시였다.

성천강수출품출하사업소에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최근년간 많은 일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곳 일군들처럼 자기 부문 사업을 깊이 연구하고 완강한 실천력으로 투쟁한다면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함흥시 회상지구농장에 새로 건설된 남새온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유액체효동, 가지효동 등 온실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남새생산실태를 알아보시였다.

온실마다에서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는 먹음직스러운 남새들을 보시면서 온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현대적인 온실들의 효용을 훌륭하게 발휘함으로써 남새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고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회상지구농장에 건설된 남새온실은 함흥시민들의 식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시기 인민들을 불러일으켜 자체의 힘으로 염소목장을 선군시대의 본보기로 일떠세운 함흥시당 책임비서 리영태를 알아보시고 그의 수고를 헤아려주시며 앞으로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축복해주시였다.

본사기자









민족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 공연이 평양대극장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인상깊은 공연

—민족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 공연 진행—

세나라시기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여 용감히 싸운 선조들의 애국심을 보여주는 민족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는 이듬있는 무용가였던 최승희선생이 창작하고 주인공으로 출연하였던 작품이다.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조선민족무용사와 세계 문에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최승희선생은 지금으로부터 50여년 전 민족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를 창작하였다. 어머니수령님께서는 그가 창작한 민족무용극을 여러차례 보아주시고 인민들을 조국수호와 애국적정신으로 교양하는데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었다. 관록있는 예술단체인 국립민족예술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은 짧은 기간에 원작의 요구와 현대적미감에 맞게 민족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를 훌륭히 재창조하여 내놓았다.

산천은 예대로 수려하고 바다가 솟은 오늘도 푸르구나

어이 알라 옛 성벽길을 파헤치면 그날의 녹슨 창검 드러날지...

장점을 들고 원주와의 싸움에 나선다.

피에 젖은 내 고향의 산천을 두고 분노에 찬 이 내마음 장검에 비껴있네

아 사도성 이 나라 강토여 한मुख사쳐 지키리라

비장한 방창이 울리는 가운데 왜적을 쳐부시는 진장에서 금이와 순지는 감격적인 상봉을 한다. 금이와 순지는 백성들과 힘을 합쳐 원수놈들을 모조리 쓸어버린다. 드디어 사도성에 승전고



은 전위선이 비례해지지 않게 해주어 오줌이 잘 나가지도록 해준다. 이밖에도 검은콩에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소염성분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 근육의 피로를 덜어주는 비타민 B<sub>1</sub>, B<sub>2</sub>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한 몸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준다. 검은콩으로는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약으로 리용할 때와 같은 점에 류의 하여야 한다.

겨울철 건강을 위한 옷차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점에 류의 하여야 한다. 중풍에 걸릴 위험이 많은 30~40대의 사람들과 늘 괴롭고 뒤뉘며 애매한 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모자를 쓰고 다녀야 한다. 겨울에는 풍기가 차고 건조하여 건조성피부염을 비롯한 피부질환들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먼로 먼로 옷을 입는것이 좋다. 바지는 통이 좁거나 딱 조이는것을 피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너무 두꺼운 옷을 입히면 땀이 많이 나기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고 운동에도 지장을

민익점은 무화과를 찌서 동모형체들에게 무명우울 해입히기 위해 아들과 손자들까지 과거공부를 전 폐하고 무화에서 술을 내고 실을 뽑아 천을 짜는 공정을 연구하게 하였다. 그는 씨를 뽑는 기구를 만들어서... 《문래》와 《문명》 《문래》라고 하였으며 기구로 만들어 찬 천을 역시 다른 손자의 이름을 달아 《문래》와 《문명》

##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0돐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탄생 94돐을 맞으며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는 고결한 충정과 인덕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1) 고결한 충정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  
2) 숭고한 인덕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  
강의시간: 2강의  
송출날자: 주제100(2011)년 12월 24일  
강의제목: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출한 위인으로 키워주신 혁명의 위대한 어머니 김정숙동지  
강의시간: 1강의  
송출날자: 주제100(2011)년 12월 23일  
홈페이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 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검은콩은 각종 비타민과 광물질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약재로 널리 리용되어왔다.

검은콩을 조개보았을 때 속이 노란것은 서안데, 파란것은 서목대(쥐눈이콩)라고 부른다. 약재로는 쥐눈이콩이 더 좋다고 하는데 그것은 쥐눈이콩에 기능성물질인 이소플라본이 일반콩에 비해 19.5배나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검은콩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비타민 E와 칼리움, 혈관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칼슘이 풍부하며 빈혈을 예방하는데 좋은 비타민 B<sub>12</sub>과 인산, 베타카로틴, 철도 매우 많다. 검은콩에는 항산화물질인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혈관의 노화를 촉진시켜 동맥경화나 심장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그뿐아니라 불포화지방산도 많이 들어있어 혈관에 플

데 머리칼이 희어지거나 빠지는 중세가 많이 나아졌다 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검은콩에 말초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산이 있기 때문이다. 검은콩은 오줌이 정상으로 배출되도록 한다. 고려의학자들은 검은콩이 에베르기를 증가시켜 원기를 돌리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소개되어있다. 특히 생명에너지를 관장하는 콩팥의 기능을 향상시켜 피에 섞인 오줌편을 돌려싸고있

## 물고기와 쌀밥식료품 식혜

식혜는 물고기에 소금과 쌀밥을 넣어 숙성시킨것이다. 식혜는 먼 바다에서 생선을 저장하였는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식혜에 쓰이는 물고기는 명태, 가재미, 곱동머, 도루메기, 멸치 등 다양하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린 물고기로 식혜를 담그기도 한다.

## 단편 소설

× 그후 나는 은숙을 만나지 않았다. 아니, 매일 만났다, 꿈속에서.

해마다 설날과 그의 생일이면 나는 그에게 엽서를 보내곤 하였다. 은근히 회담을 기다렸으나... 회담은 없었다. 그는 마치 나의 존재를 무시해버린것 같았다. 영영 잊어버린것이었다. 아니, 잊으려 애썼었다는것을 나는 알고있었다.

천리마대교조로 들끓던 그 시기 청춘남녀들의 생활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 많이 피어났던가. 나와 함께 제대되어온 청년들은 다 고향을 이루었다. 우리 공장은 처녀들도 많았다. 몇쟁이치녀도 있고 마을세 끝고 순박한 처녀도 있었다. 모두가 나를 떠났고 존경해주었다. 그들이 나에게 그 어떤 다른 감정을 품고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나에겐 그들이 훌륭한 동무들이고 우수한 노동자들이긴 했지만 그저 그뿐이었다.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 내가 목석이 되어버렸는지... 나에게 처녀를 소개하는 사람도 많았다. 동무들속에, 인공들속에... 그들은 자기가 잘 아는 어느 처녀를, 아니면 자기의 친척이나 형제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내가 응하지 않자 의아해하였다. 약속한 처녀가 있는가? 어디에? 그런데 왜 편지도 없이 중무소식인가? 팬찮은 청년이 로총각으로 늙어간다... 참 이상도 하다. 흑시 병이 있는게 아닌가, 별의별 의혹과 억측이 뒤따랐다. 한해, 두해... 세월이 흘렀다. 내 나이도 이제는 서른다

는 전위선이 비례해지지 않게 해주어 오줌이 잘 나가지도록 해준다. 이밖에도 검은콩에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소염성분과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 근육의 피로를 덜어주는 비타민 B<sub>1</sub>, B<sub>2</sub>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한 몸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준다.

검은콩으로는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약으로 리용할 때와 같은 점에 류의 하여야 한다.

중풍에 걸릴 위험이 많은 30~40대의 사람들과 늘 괴롭고 뒤뉘며 애매한 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모자를 쓰고 다녀야 한다. 겨울에는 풍기가 차고 건조하여 건조성피부염을 비롯한 피부질환들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먼로 먼로 옷을 입는것이 좋다.

바지는 통이 좁거나 딱 조이는것을 피해야 한다. 어린이들에게 너무 두꺼운 옷을 입히면 땀이 많이 나기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고 운동에도 지장을

민익점은 무화과를 찌서 동모형체들에게 무명우울 해입히기 위해 아들과 손자들까지 과거공부를 전 폐하고 무화에서 술을 내고 실을 뽑아 천을 짜는 공정을 연구하게 하였다. 그는 씨를 뽑는 기구를 만들어서... 《문래》와 《문명》 《문래》라고 하였으며 기구로 만들어 찬 천을 역시 다른 손자의 이름을 달아 《문래》와 《문명》

## 약 (6)

글 배경휘, 그림 김윤일  
정을 품고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나에겐 그들이 훌륭한 동무들이고 우수한 노동자들이긴 했지만 그저 그뿐이었다. 이성으로서의 감정은 느끼지 못했다. 내가 목석이 되어버렸는지... 나에게 처녀를 소개하는 사람도 많았다. 동무들속에, 인공들속에... 그들은 자기가 잘 아는 어느 처녀를, 아니면 자기의 친척이나 형제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내가 응하지 않자 의아해하였다. 약속한 처녀가 있는가? 어디에? 그런데 왜 편지도 없이 중무소식인가? 팬찮은 청년이 로총각으로 늙어간다... 참 이상도 하다. 흑시 병이 있는게 아닌가, 별의별 의혹과 억측이 뒤따랐다. 한해, 두해... 세월이 흘렀다. 내 나이도 이제는 서른다

## 동서 날과 팔죽

히 썰어먹는 팔죽에는 동지죽 또는 오그랑죽이라는 이름까지 붙게 되었다. 팔죽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만든다.

먼저 찹쌀을 물에 불구어 씻어서 가루를 내고 소금을 넣은 물로 익반죽하여 먹기 좋게 동그란 새알심을 만든다.

팔을 씻어서 솔에 안친 다음 물을 붓고 삶는다. 팔이 끓어올라오면 찬물을 조금 붓고 팔이 풀어질 때까지 세지 않은 불에서 계속 끓인다. 삶은 팔을 채로 잘 거른 다음 먼저 옷물을 따라냈고 끓인다. 팔물이 팔로부터 현싨를 넣고 계속 끓이다가 쌀알이 퍼지려할 때 팔

## 인간수명에서 남녀의 차이

가 되여도 집안일을 하면서 쉬지 않고 몸을 움직이게 때문에 건강이 파괴되는 것이 적다라고 한다. 이러한 요인으로 어떤 나라에서는 100살 넘는 장수 인간의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한다.

반면에 남성은 유전적 환경이나 직업, 은퇴후의 생활 등 모든 면에서 여성보다 불리한다고 한다. 남자는 젊은 시기에는 경쟁적, 공격적경향이 강하여 사고를 일으키거나 자살하는 비율이 여자보다 많다고 한다. 은퇴 후 자기 관리를 잘못하여 심한 정신적자극을 받으면 위축되고 활력을 잃기 때문에 신체의 저항력이 떨어진다라고 한다. 남자들이 은퇴후 할 일이 별로 없이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는것도 수명을 짧게 하는 한 측면이라고 한다. 여성은 할머니

명》이라고 하였다. 후에 《문래》는 《문래》로, 《문명》은 《무명》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우리 인민들은 오래전부터 문익점에 의해 무명옷을 입게 되었다. 본사기자

《다리가 몹시 아프세요?》 그는 나에게 왜 원로직장에 와서 일하는가를 묻지 않았다. 다리를 왜 상했는지도... 그 사연은 이미 다 알고있었는지... 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도 나와 같은 《소식통》을 가지고있었는지... 하여튼 그는 다 알고있었다. 《고생이 많으시군요.》 《고생이야 뭐... 누구나 하는 일이지.》 그는 미소를 지었다. 《중대장동지를 찾아왔소유리.》 순간 나는 웃기치는 기쁨과 함께 저으기 긴장해짐을 느꼈다. 꼭 나의 도움이 필요했던 모양이구나.

그때서 성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나의 몸을 훑어보고 얼굴을 들여보는 그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나는 어쨌든 웃었다. 《나는 그저... 이렇게 일하고있소. 그런데 무슨 일이게? 아니, 우리 휴게실로 가 이야기지요.》 그는 중기난방으로 덥기는 하나 화려하지는 못한 우리의 휴게실안을 빙 둘러보고 나의

다. 흰눈을 배경으로 두드리지거 안겨오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쿵 울리었다. 은숙의 모습을 나는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러나 믿이지지 않았다. 자기의 눈을 의심하면서 굳어진듯 서 있었다. 《누가 찾아왔소.》 그가 손짓하며 소리쳤다. 직장일이 가리키는 곳에 흰 목도리로 머리를 감싸고 진공색의투를 몸에 꼭 맞게 입은 날씬한 여자가 서있었다. 《문래》라고 하였으며 기구로 만들어 찬 천을 역시 다른 손자의 이름을 달아 《문래》와 《문명》